

최고의 품질에 대한 해답은 '안전'에 있다

- (주)샤니 대구공장 -

제빵전문그룹 (주)샤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샤니빵 한 번 먹어보지 못한 이가 없을 정도로 수십년에 걸쳐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다. 사실상 '국민 제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처럼 (주)샤니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한결같은 품질과 맛이 그 해답일 것이다. 하지만 이곳 임직원들이 꼽는 국민 제빵기업의 비결은 따로 있다. 바로 '안전'이 그것이다. 보다 신선한 빵, 더욱 깨끗한 빵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정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심혈을 쏟은 결과, 지금과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게 그 설명이다.

'내실경영', '품질경영', '인재경영'의 경영지침을 가지고 더욱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안전'에 매진한다는 (주)샤니 대구공장을 찾아가 봤다.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lsu002@safety.or.kr)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엔 아낌이 없다

이곳의 공정은 크게 중중배합, 1차 발효, 2차 배합, 분할·라운딩, 성형, 2차 발효, 소성, 포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기계·기구로 인한 재해의 위험성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빵의 맛을 좌우하는 반죽, 배합, 모양내기 등의 세부작업은 근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문제는 이들 작업의 경우 반복작업이나 서서 일하는 작업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은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담 보건관리자를 두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스트레칭, 건강검진, 금연운동 등 다양한 보건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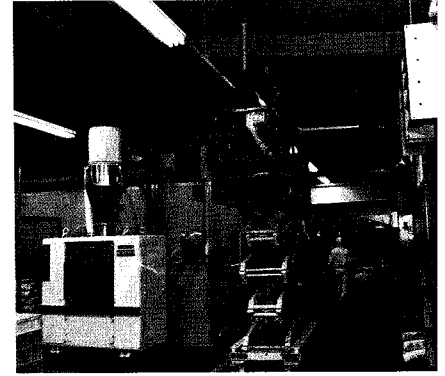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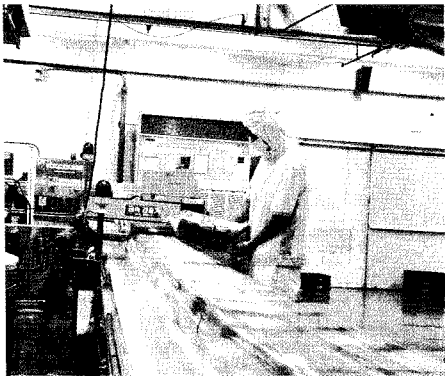
또한 근로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부공정에 대한 자동화작업도 꾸준히 진행해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35억원 정도를 투자해왔는데, 내년에는 무려 60억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건관리자 이영미 과장은 “보통 제빵생산을 쉬운 작업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장시간 입식 작업, 빠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다”면서 “이들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보건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틈없는 기계·기구 안전관리

앞서 조금 언급했듯 자동화된 공정의 경우 평시 재해발생의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기계·기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일례로 컨베이어에만 문제가 생겨도 협착, 절단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따라서 이곳은 공정 내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필두로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꾸준



SHANY®
MAKING BREAD SUCCESS!



히 실시하는 것은 물론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도 받아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경영진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어떤 일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곳 경영진은 각 부서 안전보건담당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각종 점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의 개선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또한 개선작업 이후에는 추가적인 확인과정도 철저히 챙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일이 즐거워야 안전활동도 즐겁다

이곳은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아끼고 존중할 때 진정한 안전보건관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차원에서 직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동호회 활동과 노사화합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직장 내 모임만도 영화동우회, 낚시 동우회, 등산 동우회, 탁구동우회, 볼링동우회 등 10여개에 이른다. 특히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영화관람, 등산 등의 경우는 정기적인 전사적 행사로 진행하고 있을 정도다.

안전담당자 김주영 과장은 “근로자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근무하고 있다”면서 “노사가 하나 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총력’

최근 이곳은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활동이 뿌리내릴 때, 사업장에 항구적인 안전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곳의 ‘제안신고제도’다.

이곳의 근로자들은 작업공간에서 기계적 결함이나 설비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신고를 한다. 회사는 이러한 직원들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독려키 위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인사사고과에도 반영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설비개선과 자율안전의 정착을 통해 제빵업계 리딩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이곳의 계획이 향후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



이 용 발 공장장

“안전은 소통에 달려있다”

우수한 안전관리는 회사의 강압적인 지시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직원들과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해 가는데 집중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내에 안전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이란 일하고 싶은 일터에서 일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점을 명심하고 관리자가 아닌 개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정말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